Living the Lotus 7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6
VOL. 250

RKINA Holds National Leaders Training in Los Angeles, June 5–7, with Dr. Dominick Scarangello as Guest Lecturer

Living the Lotus
Vol. 250 (July 2026)

발행: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03-5341-1124 / Fax:03-5341-1224
E-mail: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아까가와 케이치
편집장: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김은미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니와노 니치코(庭野日鑛)
입정교성회 회장

고분고분하게 연(緣)에 따라

'오늘 밤 찾아온 아내와 함께 올려다본 달'(모리 스미오(森澄雄)) - 백중이 시작되는 날 저녁,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맞이하여 함께 바라보는 달이여,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가, 라는 뜻일까요. 먼저 세상을 떠난 반려자에게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고 있어요, 안심해 주세요'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부부만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모두 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人間)이라는 글자 그대로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일과의 만남이 쌓이고 인생도 차곡차곡 만들어져 갑니다.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개조님께서 한 마디로 명쾌하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단지 그 만남 중에는, 상대에 대해 원망이나 증오를 품고 괴로워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각자 인생의 경험도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때, 가령 '이 사람과는 맞지 않네' 하고 단정을 지어버리면, 그만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재미있는 사람이네'하고 느끼거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옷소매가 스치는 것도 여러 생의 인연'이라고 하듯이, 불교에는 '대면동석오백생(対面同席五百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도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지므로, 하나의 만남을 자기 사정(편의)이나 감정대로, 좋다나쁘다 하며 판단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인 타니카와 순타로(谷川俊太郎)는 '사람과의 만남 덕분에, 내 자신과도 만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의해 스스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의 일면을 알아차리게 되고, 또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닦아주는 숫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간성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내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비슷할 정도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연(緣)에 순종하여 고분고분하게 사람과 마주하는 쪽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사람과도 다시 만난다

그렇다고 하지만, 싫은 일이나 미운 사람을 고분고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들은 부처님 덕분에, 사람도 일도 비교적 고분고분하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본 회에서는 자신에게 불편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나 그런 현상에 직면했을 때, '이것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하며 내성하고, 어째서 나는 그것을 불편하고 싫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냉정하게 주시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습관이 고분고분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특히 사람과의 만남은, 여러 가지 인과 연의 연속에 의해 생긴 불가사의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사전에서 '연(緣)'에 대해 찾아보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인력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힘'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누구와의 만남이든 반드시 만나기로 되어 있어서 만났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부나 부모 자식, 형제자매는 물론,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신과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사이좋게 웃으며 마주하는 것이, 모든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연기의 이법(理法)에 따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맞이하게 되는 백중에, 우리들은 선조님과 돌아가신 가족들과의 만남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지난날을 떠올리며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깊어질 것입니다.

한편, 지금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음미할 때, 독경공양 중에 나오는 '삼귀의문'과 '보회향' 등 정진을 맹세하는 말이 평소보다 더 가슴에 와닿아, 돌아가신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살아가자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게 될 것입니다.

(『교성』 2026년7월호)

가정, 사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하고 싶습니다

입정교성회 방글라데시 교회　스미・보루아

입정교성회 신앙을 시작한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입정교성회 신앙을 시작한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2000년에 입정교성회 방글라데시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제 아버지가 입회를 하고, 저는 신앙2대째입니다. 아버지는 오랜 시간 지부장 역할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이끌려간 도량에서 같은 세대의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독경공양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제가 아직 11살 때, 아버지는 45세로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는 것이 슬픔을 극복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는 청년부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2017년, 방글라데시 교회에서 개최된 청년세미나에 처음 참가했을 때, 비디오 영상을 통해 개조님의 법화를 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면, 인간과 다른 생물과의 차이는 사라져 버린다.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조님의 이 말씀에 제 마음은 크게 동요했고, 저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정교사를 하고 있던 저는,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학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많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며, 그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깊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또, 방글라데시 교회에는 학림을 졸업한 30명이 넘는 선배들이 교성회 도량과 지역 사회에서 리더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더 배워서 선배들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는 마음이 강해져, 학림에 입림(入林)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학림 설법회 중, 학림에서의 배움을 발표하는 스미님

올해 3월 학림(蓮澍・海潮音科(연수 해조음과)31기)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 연구 발표는 '자기의 알아차림과 가정교육'을 테마로 했습니다만, 이 테마를 고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약 8년간 의 가정교사 경험을

Interview

통해서,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부부의 불화나 부모 자식 간의 단절에 의해 고통과 고민을 안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풍요롭다고 해서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평소 생활 속 가족 간의 인간관계와 마음의 자세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실감했던 일이, 이 테마를 고른 동기였습니다. 가정은 아이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인격형성을 기르는 중요한 장소이며,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림에서 문화가 다른 승가들과 생활을 함께하며 입정교성회 가르침을 접하면서, '타인을 바꾸는 것 보다 나의 시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관계개선의 제일 첫 걸음이다' 는 시점을 깊이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가정의 조화와 평화를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이 테마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예정입니까?

방글라데시 교회는 현재, 주로 육아를 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가정교육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동시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나 가정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금까지 가정교육을 배우신 리더 여러분과 함께 방글라데시의 가정 평화 만들기에 조금이라도 공헌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삭 걸기 축제」중, 해조음과 동기와 선배들과 함께

개조님, 회장선생님의 말씀 중에 마음에 새기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개조님 말씀 중에는 '있는 그대로 본다' 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소, 자기중심적인 시각과 편견, 선입관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좋고 싫음, 자기자신의 잣대로 선악을 판단해 버려서,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개조님께서는, 저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하여, 지혜를 몸에 익힘으로써,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장선생님께서는 항상 법화에서 '재가' (가정을 정돈하는 것)를 강조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바로 하고, 가정을 정돈하는 것이 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재가' 를 마음에 두며,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를 고분고분하게 나눌 수 있는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관계가 구축되도록, 입정교성회의 가르침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입정교성회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꼈습니까?

가장 큰 매력은 회원 여러분이 항상, 상대가 누구든 합장배례하며 미소 지으며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소를 보고,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행복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알아차리고는, 지금 저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가분들의 따뜻함과 상냥함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가 여러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쁨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다가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어떤 큰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어도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항상 많은 승가가 옆에서 격려를 해주고, 제 행복을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며, 인생을 긍정적을 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nterview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행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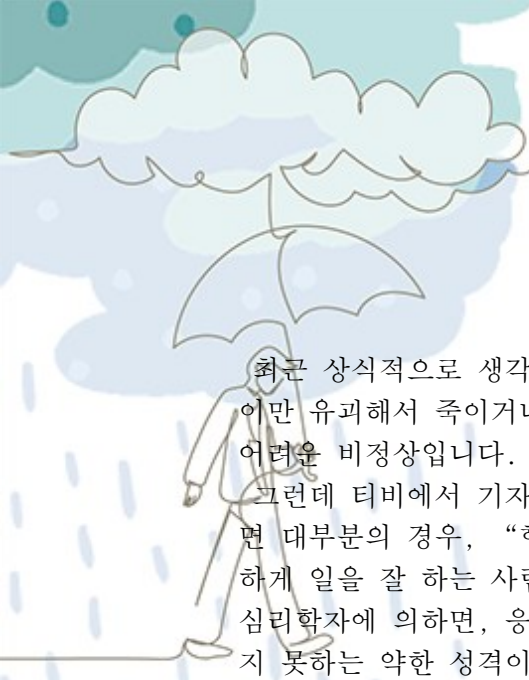
지금은 입정교성회 방글라데시 교회 청년부 승가들에게 학림 생활과 수행, 오타교회에서 한 포교실습 등, 일본에서 배운 많은 체험과 공덕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법화경과 입정교성회 가르침을 근거로 한 가정교육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정의 평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며, 그 변화가 가족관계를 바꾸며, 사회나 세계 평화에 파급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 는 것을 마음에 명기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화경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전할 것을 앞으로의 수행 목표로 삼겠습니다.

학림 워크에서 찍은 전체사진(앞 열 오른쪽에서 4번째)

자비심에서 생겨나는 엄격함

엄격함이 옅어진 사회

입정교성회 개조　니와노 닛쿄(庭野日敬)



최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만 유괴해서 죽이거나, 일이 싫어졌다고 일하던 공장에 방화를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티비에서 기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근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항상 어른스럽고 붙임성 있는 친근한 사람입니다"던가,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응석받이로 과보호를 받으며 자라난 탓에, 세간의 엄격함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성격이 되었고, 원하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획득한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만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쉬운 방법을 선택해 버리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비정상적인 죄를 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력하고 기가 죽어 있고, 조그만 일에도 자살해 버리는 소년 소녀의 존재도 요즘 자주 보고 듣습니다. 소년소녀뿐 아니라, 청년, 장년이 되어도 인내나 분발이라는 정신력이 부족하며, 무언가에 좌절하기 쉬운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응석받이로 자란 탓이라고 합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키우는데에는, 다정함과 동시에 엄격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새나 짐승도, 막 태어난 새끼는 아주 세심하게 귀여워 하며 키웁니다만, 커서 둥지를 떠나기 전이 되면 조금씩 떼어놓아 대자연이나 천적으로부터의 위험에서 몸을 보호하는 것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이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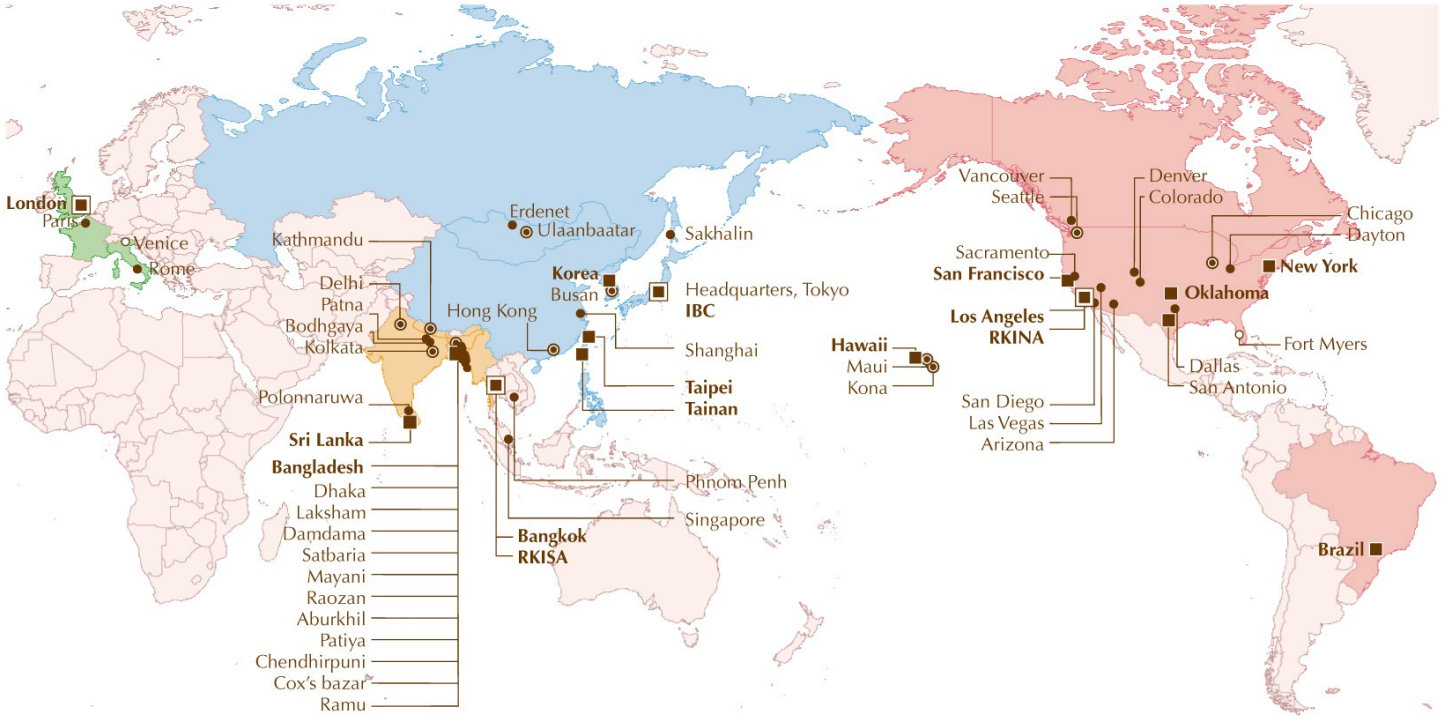
화목이나 과수 같은 식물에서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비료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아름다운 꽃도 좋은 열매도 열리지 않습니다. 역시 가지와 잎을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생명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도 생물의 한 종류이므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니와노닛쿄헤세법화집1『보리의 싹을 틔움이니라』p.102-103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A Global Buddhist Movement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